

# 애니메이션 어린왕자와 야수주의

Animation 'Little Prince' and Fauv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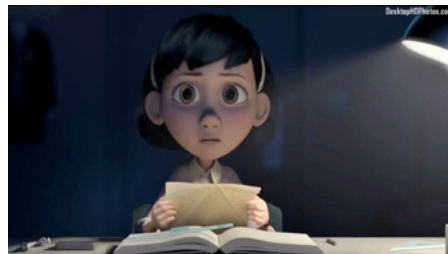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얼마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어린왕자를 지난 주말 잠시 시간을 내어 보러 갔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왕자의 이야기에 마크 오스본 감독 자신이 힘을 실어 주는 줄거리를 간단하게 각색하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아무래도 잔잔한 어린왕자 이야기에 흥행에 도움이 되는 임팩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도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영화를 보는 중간 중간, 현대 사회에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던져 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녀가 명문 사립고에 진학하기 위해 이사 가는 동네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건조한 환경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다. 잘 구획된 시가지 안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일률적으로 지어진 집들은 모든 것이 수직과 수평의 구도 안에서 잘 작동되도록 그려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소녀는 거실 한복판에 오와 열에 한껏 잘 맞춰 정돈된 계획 표에 따라 일과를 보낸다. 이 일과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 계획 되었으며 소녀가 하루 일과를 미룰 때마다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오차날 수 있는지 그려내는 모습은 비단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사실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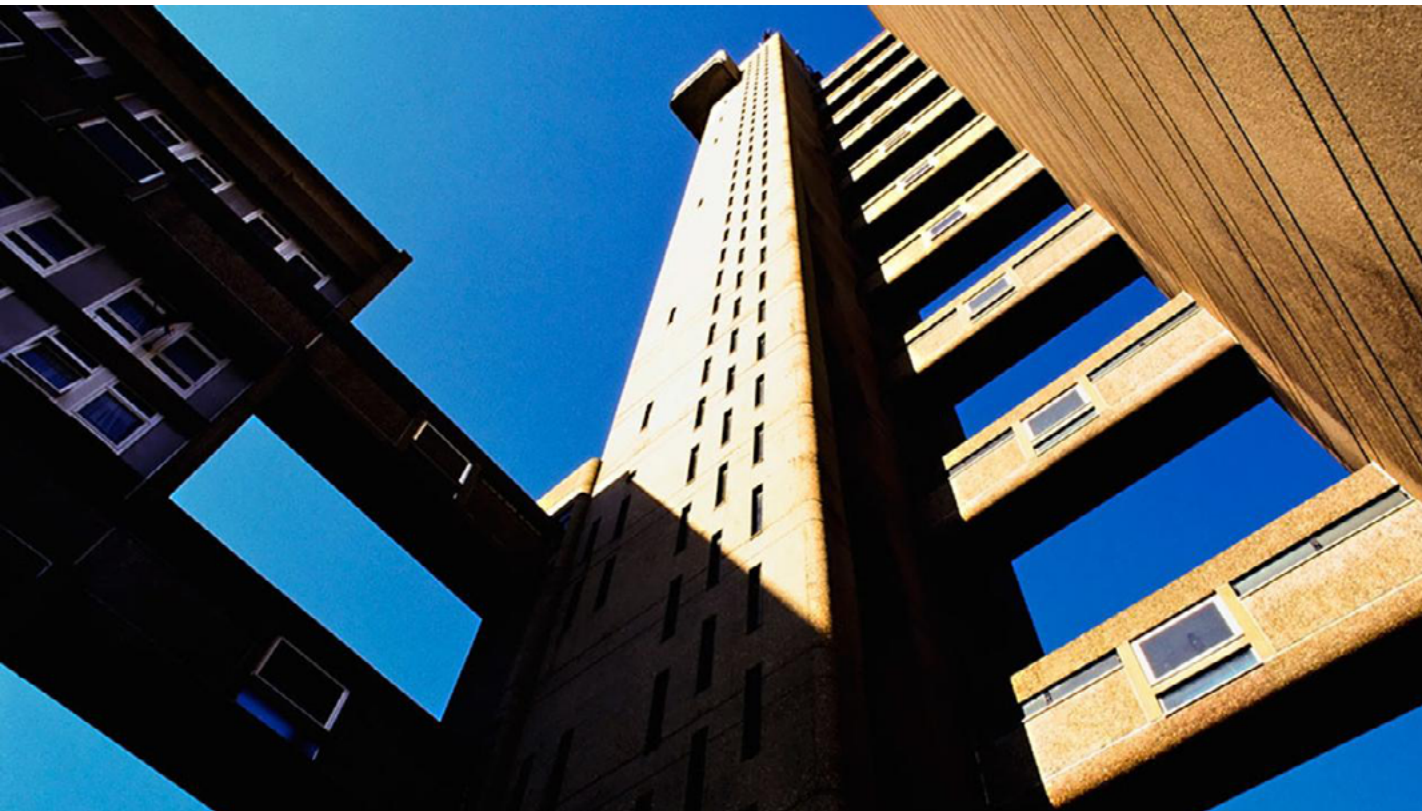
어린 왕자\_ 조종사 할아버지와 그의 비행기



어린 소녀가 처음 어린왕자의 존재를 알게되는 순간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한 벌과 각진 자동차로 직장을 오가는 엄마와 달리, 회색 콘크리트 공간 안에서 보게 되는 이웃집 조종사아저씨의 집은 더욱이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전후 1950년대부터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다. 1910년 이후 한 동안,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와 후유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빨리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다. 오랜시간동안 이뤄 왔던 각자의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포탄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으며, 그 후, 그들이 식사했던 공간, 대화를 나눴던 공간들은 서로 충구를 겨누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탈되어 힘 있는 국가나 기관에 의해 재분배 되는 소용돌이가 있었다. 50년대 이후 모두가 과거에 속박되지 않고, 재빨리 삶의 질을 올려놓고자 건축적으로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야수주의 대표 건축물 - The Trellick Tower in Ladbroke Grove(1972)



야수주의 대표 건축물 - A World War Two Flak Tower in Hamburg, Germany - Friedrich Tamms

이러한 고민은 사실 르 꼬르뷔지에가 지중해의 따뜻한 태양아래서 노출콘크리트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고민한 것보다도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육중한 양감과 거친 재질감, 대담한 색채, 그리고 콘크리트와 회반죽이 가지는 재료적인 기능성은 그 당시 그들의 그윽한 향수를 자극해 내는 아주 이질적인 결과였다. 더구나 콘크리트와 벽돌의 조합이 주는 건물의 전체적인 육중함은 구조적인 안정감으로 연결되며, 그를 통해 건물 입면이 보여주는 그래픽적인 표현, 주요기능이 단순하게 읽혀지는 공간적인 해석은 일반인에게도 또한 쉽게 읽혀지는 건축의 발전된 한 단계를 보여줬다. 용도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대학 건물, 정부 기관 건물, 고층 건물 등을 위해 재료의 직관적인 표현, 기능, 강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건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에서 더욱 강한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로 소녀가 병원에 입원한 조종사 아버지를 위해 어린왕자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보면, 이러한 건축적인 어휘는 더욱이 잘 관찰할 수 있다. 조종사 아버지의 비행기를 타고 행성에 불시착 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건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고층건물이며, 어둠 속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의 어른으로 그려지는 감독의 의도는 더욱이 사회가 보여주는 힘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생각된다. 어린왕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건물의 옥상에서 건물의 지하실까지 기본 스케일을 뛰어넘은 크다 큰 공간과 덩어리의 비정상적인 크기는 어린왕자와 소녀가 이겨내기에는 벽차 보이기도 할 만큼 위압적으로 그려진다.

대학건물, 정부기관 등에서 이러한 요소가 자주 쓰였던 것도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야수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반복되는 모듈 안에서 형태가 결정이 되고, 특정한 기능적인 공간 형성이 된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쓸데없는 공간이나 벽의 제한이 없이 이용자에게 소유 공간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대신 이웃공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 되는 구조는 그 기능에 더욱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감독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건축적인 부분은 실제로 소녀와 조종사 할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더욱 잘 읽어낼 수 있다.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하면서도 전혀 알 수 없게 된 소녀의 집안 환경에서 조종사 할아버지의 망가진 비행기 프로펠러가 날아와 벽을 부수게 된다. 그 부서진 틈을 사이로 할아버지와 소녀가 만나는 불과 1미터 남짓한 공간은 이 영화의 전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